

##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실향의식

###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the home town in the Novels of Lee Ho-cheol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이호철의 1950년대 소설인 <탈향>과 <나상>에는 '실향 의식'을 연구한 것이다. 실향의식의 원인은 분단으로 인한 공간적 단절 때문이다. 또한 이호철은 분단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월남인들의 공동체 붕괴와 가족의 해체를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호철의 초기 소설에 나타난 최종 귀착점이 '탈향의 서사로 시작되어 '귀향'에서 귀결되어야 함을 보여 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I. 서론

이호철의 소설은 1960년대 이후, 개인적인 체험에서 확장하여 민족사적인 과제인 분단 체제에 따른 실상을 그려내기 시작한다. 이는 "4·19 직후 일시나마 언론의 자유가 실현되고 이 땅의 소설 공간이 모처럼 남과 북을 동시에 포용하고, 이데올로기 문제를 논의에 올릴 수 있게 된 때"[1]에 연유하기도 하지만, 분단 고착화에 따른 남한 사회의 모순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호철의 1950~60년대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실향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작가 이호철이 1950년대의 전후 상황 속에서 실향의식을 탐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쟁에 따른 분단이 월남한 사람에게는 '실향의식'을 가져다주었으며, 1960년대 이후 분단 체제가 고착되면서 이에 따른 '실향의식'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음을 살피고자 한다.

## II. 본론

이호철의 소설에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나온다. 가족이 해체되고 낯선 곳에서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 인물들이 있는가 하면, 한낱 소시민이 되어 삶에 안주하려는 군상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들 인물들은 이호철의 또 다른 얼굴이면서 동시에 이호철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체험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이호철은 지금까지 계속 소설을 쓰고 있다. 그가 현역작가로서 지금까지 소설을 쓰게 된 동기는 실향민 의식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 1. 『탈향』에 나타난 실향의식

이호철 소설의 제1기에 해당하는 <탈향>은 "그의 문학의 한 원형"[2]이다. 어느 작가에게나 처녀작은 중요하지만 이호철의 경우는 남다르다. 그의 문학에 있어서 원형, 즉 불변의 요소가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걸쳐 밑그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오현주는 이호철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 그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고향에의 그리움, 남한 사회에 뿌리박지 못하고 떠도는 유랑민 의식"[3]으로 보았다. <탈향>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시민>에 이르기까지 그의 소설의 원천은 일상적 공간 속에 처한 '나'의 체험이었으며, 이로부터 일상 속에 담지된 역사와 사회의 모순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호철의 초기 소설인 <탈향>에 나타난 실향 의식을 고찰하는 것은 그의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것이다.

분단은 뿌리 뽑힌 월남인에게 생존에 따른 공동체 의식을 파괴한다. <탈향>은 한국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부산이라는 낯선 곳에 피난 온 네 사람의 이야기다. 10대인 '나'와 하원이는 먼 인척관계인 두찬이와 광석이와 함께 월남하였다. 정착할 곳이 따로 없는 이들 네 사람은 매일 밤 화차를 바꿔 타고 부두 노동을 하는 극한적 삶을 살아간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 중에 20대인 두찬이와 광석이는 낯선 곳에 적응하면서 서로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하원이를 배제하고자 한다. 이들은 낯선 타향에 서서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삶의 악을 배워가는 것이다. 분단 상황만 아니었어도 이들은 고향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분단은 이들에게 공동체적 유대감이나 집단적 동일감보다는 개별자로서의 자기 안위를 우선시하게 한다. 이들과

달리 하원이는 분단 상황에 따른 환경 변화를 깨닫지 못하였기에 이들의 처지를 더욱 난처하게 한다.

고향을 떠날 때만 해도 잠시러니 생각하였던 그들이었기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분단이 고착되리라는 불길한 예감은 이들로 하여금 고향 의식을 잊게 만든다. 고향을 떠올리는 하원이와 달리 세 사람은 각자 살기 위해 고향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 광석이다. 광석이는 타향에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현실논리를 앞세우며, 고향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는 귀향의 불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옴을 느끼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분단은 월남인의 실향 의식을 갖게 한 것이다.

## 2. 『나상』에 나타난 실향의식

〈나상〉은 과거의 중요한 삶의 원칙들이 냉엄한 현실의 논리 앞에서 훼손되고 무너지는 상황을 형의 죽음을 통해 보여 준 작품이다. 〈탈향〉의 하원이처럼 〈나상〉에 나타난 스물일곱의 형은 “둔감했고 위태위태하도록 솔직했고, 결국 조금 모자란 사람”<sup>[4]</sup>이다. 그런 그가 한국 전쟁이 야기한 분단이 없었으면 식구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끼쳤을지언정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전쟁은 스물두 살의 동생과 형을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북으로 끌려가게 만든다. 북으로 호송되면서 겪게 되는 형제애와 형의 비극적인 죽음을 다룬 것이 〈나상〉이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포로들의 극한적 행군 속에서 형은 첫눈을 보며 반가워한다. 형의 의식 속에는 자신이 전쟁의 포로라는 의식보다는 북쪽에서 경험했던 첫눈 내리는 날이 더욱 절실했던 것이다. 한국 전쟁의 아픔은 북송되는 와중에 경험하게 된 첫눈의 감상성이 귀향의 불길함을 동반하면서 고조된다. 권영민은 이호철의 초기 소설이 보여 준 서정적 아름다움이 1950년 한국 전쟁 당시에 인민군으로 참전했던 개인적 체험을 극화한 것이라고 하였다.<sup>[5]</sup> 〈나상〉 또한 개인적인 내면 의식보다는 민족 분단의 역사적 상황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

〈나상〉은 한국 전쟁 당시의 국군 포로들을 소재로 다룬 이야기다. 북송되는 포로들 속에서 우연히 만난 형과 동생은 서로를 의지해야 했지만 ‘조금 모자란 사람’인 형은 동생을 위해 애를 쓴다. 결국 형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지만 동생은 살아서 귀환한다. 이처럼 작가 이호철은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분단서사가 결국은 ‘탈향’으로 시작되었기에 ‘귀향’으로 끝나야 함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 Ⅲ. 결론

이처럼 이호철의 초기 소설인 〈탈향〉과 〈나상〉의 세계는 한국 전쟁과 전후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우리 민족

이 겪은 체험을 형상화시킨 작품이다. 고향을 잃고, 사랑하는 동생과 사별해야만 하는 원인을 밝힌 이 두 편의 단편은 ‘실향’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귀향’을 어떤 방식으로든 호명하고 있다.

한국 전쟁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탈향〉이라는 작품을 통해 분단의 상처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뿌리 뽑힌 자의 자기 확인과 그 새김’으로 명명하였다. 예컨대 분단은 월남인에게서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였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낯선 곳에 정착하는 생존의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아픔과 고통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약자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예전에 한 마을에 살았던 친구마저도 이들 월남인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가족을 떠나 타향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실존적 선택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나상〉에는 한국 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동생을 위해 희생한 형을 그리워하는 동생을 통해 ‘실향의식’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 즉, 전쟁만 없었다면 흰 눈을 보며 좋아라했던 형과의 생이별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호철의 초기 소설은 분단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향의식’의 아픔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보여준다. 그러나 분단 반세기가 지난 현 시점에서 월남한 젊은이들이 낯선 타지에서 뿌리내리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전쟁 포로로 잡혀간 형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실향에서 끝나지 않고 귀향으로 이어져야 함을 힘주어 말한다.

## ■ 참고 문헌 ■

- [1] 구중서, 이호철, 이데올로기에 대한 인간적 대응, 이호철 소설 연구6, 새미, p.65, 2001.
- [2] 임현영, 분단시대 소시민의 거울, 이호철 소설 연구6, 새미, p.185, 2001.
- [3] 오현주, 관조와 풍자의 세계,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p.275, 1998.
- [4] 이호철, 나상, 한국소설문학대계39, 동아출판사, p.325, 1995.
- [5] 권영민, 이호철의 소설, 단함과 열림의 세계, 이호철 소설 연구6, 새미, p.112, 2001.